

2021년도

# 문화동반자 사업 통계자료 분석 보고서

2021. 03.





# 提 出 文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귀하

“문화동반자 사업 통계자료 분석 용역” 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병용 이사  
연 구 원 조좌흠 차장  
연 구 원 이상민 과장  
연 구 원 김혜진 대리  
수 행 기 관 : (주)글로벌리서치



# CONTENTS

## 제 목 차 례

제1장 과업 개요 .....	1
1. 개요 .....	2
1.1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2
1.2 분석 범위 .....	2
1.3 분석 방법 및 내용 .....	3
2. 참여자 특성 분석 .....	4
제2장 통계분석 결과 .....	15
1. 현황 분석 .....	16
1.1 성과 발생 현황 .....	16
1.2 대륙별 성과 .....	17
1.3 국가별 성과 .....	18
1.4 기관별 성과 .....	19
1.5 사업(프로그램)별 성과 .....	20
2. 사업 효과 분석 .....	21
2.1 참여자 종사 부문 .....	21
가. 지속성 : 문화분야 지속 종사 .....	21
나. 효과성 : 사회적 지위 상승 .....	22
2.2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부문 .....	23
가. 활동 형태 .....	23
나. 활동 분야 .....	26
다. 발생 국가 .....	27

2.3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부문 .....	29
가. 활동 형태 .....	29
나. 활동 분야 .....	32
다. 발생 국가 .....	33
2.4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부문 .....	35
가. 활동 형태 .....	35
나. 활동 분야 .....	38
다. 발생 국가 .....	39

## **제3장 요약 및 결론 .....** 41

<b>1. 주요 성과 요약 .....</b>	<b>42</b>
3.1 사업 목적 부합성 .....	42
3.2 직접 성과 .....	44
가. 개도국 문화향유 확대 .....	44
나. 문화교류 협력 증진 .....	45
3.3 간접 성과 .....	46
가. 성평등 제고 및 여성 역량 강화 .....	46
나. 문화분야 지속발전 이행 .....	46
<b>2. 제언 .....</b>	<b>47</b>

# CONTENTS

## 표차례

[표 1] 분석 범위 .....	2
[표 2] 제공 정보 내용 .....	3
[표 3] 분석 내용 .....	3
[표 4] ODA수원국 중점협력국 참여자 현황 .....	5
[표 5] 직업군(중분류) 변화 .....	6
[표 6] 참여자 세부 특성 .....	7
[표 7] 성과 발생 현황 .....	16
[표 8] 대륙별 성과 현황 .....	17
[표 9] 국가별 성과 현황 - Top10 국가 .....	18
[표 10] 기관별 성과 현황 - Top10 기관 .....	19
[표 11] 사업별 성과 현황 - Top10 프로그램 .....	20
[표 12]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	21
[표 13]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 .....	22
[표 14]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성별, 연령별 .....	23
[표 15]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발생 국가별 .....	24
[표 16]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활동 분야별 .....	24
[표 17]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직업별 .....	25
[표 18]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분야 - 발생 국가별 .....	26
[표 19]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 국가 - 성별, 연령별 .....	27
[표 20]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 국가 - 활동 형태별 .....	28
[표 21]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성별, 연령별 .....	29
[표 22]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발생 국가별 .....	30
[표 23]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활동 분야별 .....	30
[표 24]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직업별 .....	31
[표 25]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분야 - 발생 국가별 .....	32
[표 26]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 국가 - 성별, 연령별 .....	33
[표 27]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 지역 - 활동 형태별 .....	34
[표 28]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성별, 연령별 .....	35
[표 29]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발생 국가별 .....	36
[표 30]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활동 분야별 .....	36

---

[표 31]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직업별 .....	37
[표 32]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분야 - 발생 국가별 .....	38
[표 33]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 국가 - 성별, 연령별 .....	39
[표 34]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 국가 - 활동 형태 .....	40
[표 35] 신북방 및 신남방 국가 참여현황 .....	43
[표 36]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	44
[표 37]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	45
[표 38]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	45
[표 39] 해외 연수자 초청 프로그램별 여성 참가자 비중 .....	46
[표 40]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	46



# CONTENTS

## 그림차례

[그림 1] 연도별 참여인원 .....	4
[그림 2] 성별, 연령별 분포 .....	4
[그림 3] 대륙별 분포 .....	5
[그림 4] 직업군(중분류) 변화 .....	6
[그림 5] 성과 발생 현황 .....	16
[그림 6] 대륙별 성과 현황 .....	17
[그림 7] 국가별 성과 현황 - Top10 국가 .....	18
[그림 8] 기관별 성과 현황 - Top10 기관 .....	19
[그림 9] 사업별 성과 현황 - Top10 프로그램 .....	20
[그림 10]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	21
[그림 11]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 .....	22
[그림 12]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23
[그림 13]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분야 .....	26
[그림 14]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 국가 .....	27
[그림 15]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29
[그림 16]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분야 .....	32
[그림 17]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 국가 .....	33
[그림 18]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35
[그림 19]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분야 .....	38
[그림 20]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 국가 .....	39
[그림 21] ODA수원국 중점협력국 참여 현황 .....	42



# 제1장 과업 개요



# 1 개요

## 1.1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이하 '진흥원')은 한국문화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에 공적 개발원조(ODA) 형태로 전수하여 해당 국가의 공공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역량 제고, 기반 구축 등, 문화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에 기여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진흥원에서는 해외 ODA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문화예술, 산업 분야별 전문 연수, 기본교육, 문화교류 및 체험 등)를 추진하고 사업을 통해 국내 기관이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함
- 그러나 교류사업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2005~2020년, 16년간)의 분석 및 활용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성과 현황과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 본 과업은 2005~2020까지의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분석과 사업 참여 후 활동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동반자 사업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증함으로써 개선 방향과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1.2 분석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16년간 데이터) 누적 참여자 1,262명에 대한 기본 정보 분석과 사업 참여 후 발생 성과에 대해 응답한 295명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실시함

[표 1] 분석 범위

구분	내용
조사대상	2005~2020년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
자료수집방법	사업 참여 DB 및 이메일을 통한 진흥원 자체 수행
유효표본수	참여자 1,262명 성과응답자 295명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278명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238명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261명

- 통계분석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8종과 성과 정보 3종으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공 정보 내용

구분	내용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도</li> <li>• 소속국가</li> <li>• 참여당시 소속 / 직위</li> <li>• 현재 소속 / 직위</li> <li>• 성별</li> <li>• 연령</li> </ul>
성과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10대 활동)</li> <li>•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li> <li>•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li> </ul>

### 1.3 분석 방법 및 내용

- 통계분석은 제공된 자료를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빈도, 교차 분석 시행
- 주요 분석 내용은 사업 참여자에 특성 분석 및 성과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참여 전 후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3]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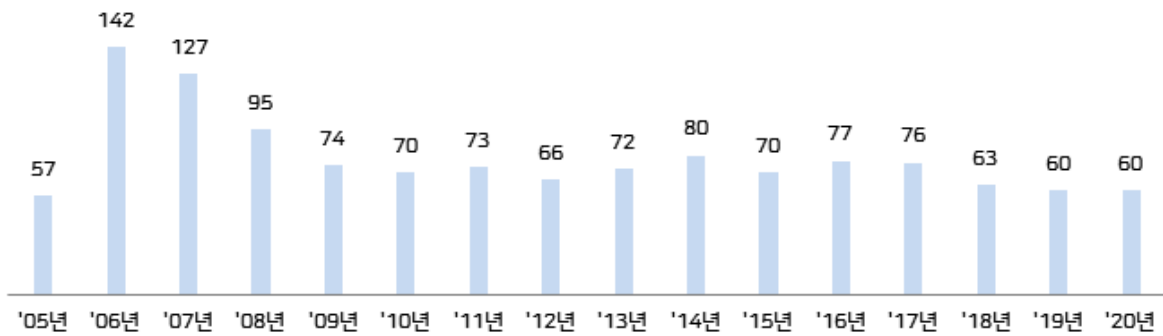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참여자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li> </ul>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참여한 대륙별 성과 현황</li> <li>• 사업에 참여한 국가별 성과 현황</li> <li>•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관별 성과 현황</li> <li>•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관의 사업(프로그램)별 성과 현황</li> </ul>
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성 : 사업(프로그램) 참여 전후 분야 비교(지속, 이탈 등)</li> <li>• 효과성 : 사업(프로그램) 참여 전후 사회적 지위 변화</li> <li>• 활동성 : 성과 발생 유형별 분석(지역, 활동, 분야)</li> </ul>

## 2 참여자 특성 분석<sup>1)</sup>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는 총 1,262명으로 '06년(142명), '07년(127명)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연 평균 참여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됨

[그림 1] 연도별 참여인원

(단위 : 명)



-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자 중 여성의 비중은 42.3%는 일반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여성 참여비중 대비 높았고, 연령대는 20대(44.2%), 30대(43.4%)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2]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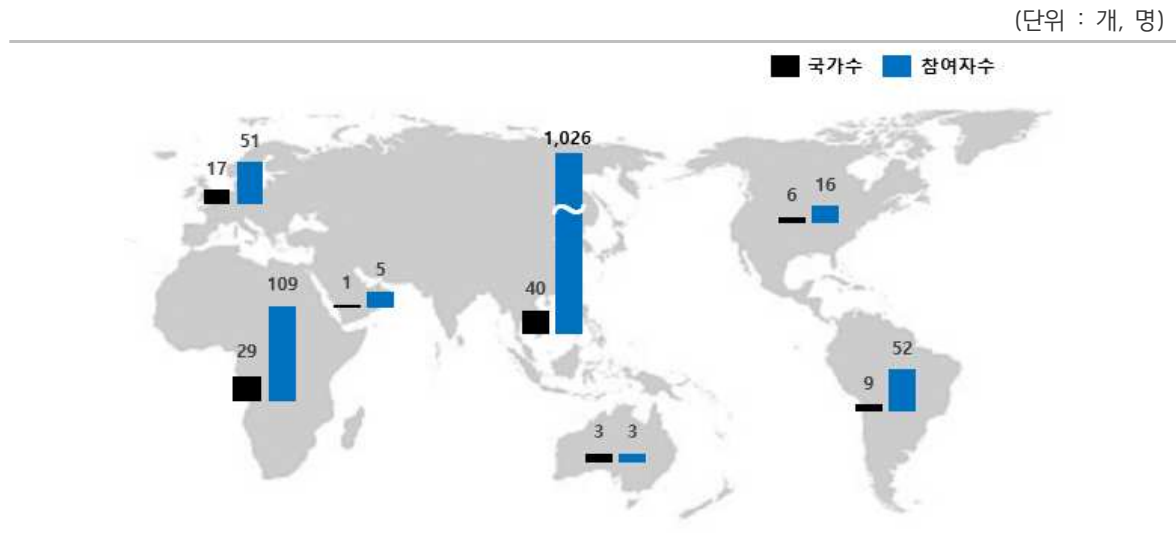
(단위 : %)



1) 성별, 연령, 직업 중 정보가 없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항목 합계가 전체 참여자 1,262명 보다 적음

-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국가는 총 105개국으로 아시아가 가장 많은 40개국, 1,026명(81.3%)이 참여하였고, 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많은 29개국, 109명(8.6%)이 참가하였음
- ODA수원국 중점협력국(24개)의 참여자는 총 83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5.8%를 차지함

[그림 3] 대륙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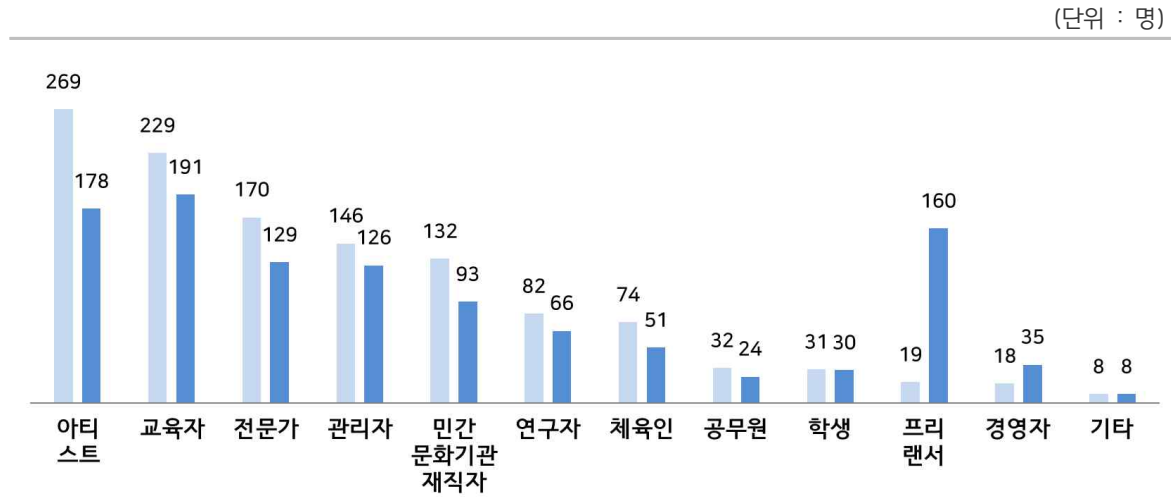


[표 4] ODA수원국 중점협력국 참여자 현황

번호	대륙	국가명	참여자수(명)	비중(%)
1	아시아 (11개국)	베트남	161	19.4
2		몽골	141	17.0
3		인도네시아	89	10.7
4		필리핀	88	10.6
5		라오스	51	6.1
6		미얀마	49	5.9
7		캄보디아	43	5.2
8		스리랑카	24	2.9
9		방글라데시	23	2.8
10		네팔	16	1.9
11		파키스탄	16	1.9
12	아프리카 (7개국)	가나	15	1.8
13		세네갈	5	0.6
14		에티오피아	4	0.5
15		르완다	4	0.5
16		탄자니아	4	0.5
17		우간다	3	0.4
18		모잠비크	1	0.1
19	중동, CIS (2개국)	우즈베키스탄	54	6.5
20		아제르바이잔	7	0.8
21	중남미 (4개국)	콜롬비아	20	2.4
22		페루	6	0.7
23		볼리비아	4	0.5
24		파라과이	2	0.2
합 계			830	100.0

-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전후로 가장 큰 비중의 변화를 보인 직업군은 '프리랜서(13.1%p 증가)', '아티스트(5.9%p 감소)임

[그림 4] 직업군(중분류) 변화



[표 5] 직업군(중분류) 변화

직업군(중분류)	사업 참여 이전		사업 참여 이후		변화(사업 참여 이전 대비)	
	참여자수(명)	비중(%)	참여자수(명)	비중(%)	참여자수(명)	비중(%p)
아티스트	269	22.2	178	16.3	△91	△5.9
교육자	229	18.9	191	17.5	△38	△1.4
전문가	170	14	129	11.8	△41	△2.2
관리자	146	12.1	126	11.5	△20	△0.6
민간문화기관 재직자	132	10.9	93	8.5	△39	△2.4
연구자	82	6.8	66	6	△16	△0.8
체육인	74	6.1	51	4.7	△23	△1.4
공무원	32	2.6	24	2.2	△8	△0.4
학생	31	2.6	30	2.7	△1	0.1
프리랜서	19	1.6	160	14.7	141	13.1
경영자	18	1.5	35	3.2	17	1.7
기타	8	0.7	8	0.7	0	0.0
계	1,201	100.0	1,091	99.8*	-	-

(\*사업 참여 이후 직업 확인 불가 비중(0.2%))



[표 6] 참여자 세부 특성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전체		(1,262)	100%
성별	남성	727	57.7
	여성	534	42.3
참여 당시 연령대	10대	2	0.2
	20대	525	44.2
	30대	516	43.4
	40대	130	10.9
	50대	15	1.3
	60대	1	0.1
	참여연도	2005년	57
2006년		142	11.2
2007년		127	10.1
2008년		95	7.5
2009년		74	5.9
2010년		70	5.5
2011년		73	5.8
2012년		66	5.2
2013년		72	5.7
2014년		80	6.3
2015년		70	5.5
2016년		77	6.1
2017년		76	6.0
2018년		63	5.0
2019년		60	4.8
2020년		60	4.8
대륙		아시아	1,026
	아프리카	109	8.6
	남미	52	4.1
	유럽	51	4.0
	북중미	16	1.3
	중동	5	0.4
	오세아니아	3	0.2
	국가	베트남	161
몽골		141	11.2
인도네시아		89	7.1
필리핀		88	7.0
태국		60	4.8
우즈베키스탄		54	4.3
라오스		51	4.0
미얀마		49	3.9
캄보디아		43	3.4
인도		33	2.6
말레이시아		33	2.6
카자흐스탄		32	2.5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중국	31	2.5
스리랑카	24	1.9
방글라데시	23	1.8
콜롬비아	20	1.6
네팔	16	1.3
파키스탄	16	1.3
부탄	15	1.2
가나	15	1.2
키르기스스탄	12	1.0
이집트	11	0.9
멕시코	10	0.8
나이지리아	9	0.7
대만	8	0.6
터키	8	0.6
아제르바이잔	7	0.6
이란	7	0.6
케냐	7	0.6
아르헨티나	6	0.5
체코	6	0.5
페루	6	0.5
남아프리카	6	0.5
튀니지	6	0.5
브라질	5	0.4
불가리아	5	0.4
헝가리	5	0.4
파레스타인	5	0.4
세네갈	5	0.4
싱가포르	5	0.4
볼리비아	4	0.3
에콰도르	4	0.3
에티오피아	4	0.3
홍콩	4	0.3
러시아	4	0.3
르완다	4	0.3
탄자니아	4	0.3
알제리	3	0.2
보츠와나	3	0.2
칠레	3	0.2
코트디부아르	3	0.2
콩고	3	0.2
일본	3	0.2
몰도바	3	0.2
모로코	3	0.2
폴란드	3	0.2
루마니아	3	0.2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수단	3	0.2
타지키스탄	3	0.2
우간다	3	0.2
우크라이나	3	0.2
벨기에	2	0.2
카메룬	2	0.2
크로아티아	2	0.2
쿠바	2	0.2
동티모르	2	0.2
조지아	2	0.2
마다가스카르	2	0.2
몰디브	2	0.2
말리	2	0.2
오만	2	0.2
파라과이	2	0.2
시리아	2	0.2
토고	2	0.2
베네수엘라	2	0.2
잠비아	2	0.2
아프가니스탄	1	0.1
슬로베니아	1	0.1
슬로바키아	1	0.1
바레인	1	0.1
부르키나파소	1	0.1
브루나이	1	0.1
코스타리카	1	0.1
피지	1	0.1
가봉	1	0.1
온두라스	1	0.1
이라크	1	0.1
이스라엘	1	0.1
자메이카	1	0.1
요르단	1	0.1
라트비아	1	0.1
레바논	1	0.1
레소토	1	0.1
마케도니아	1	0.1
모리타니	1	0.1
모잠비크	1	0.1
니카라과	1	0.1
니제르	1	0.1
팔라우	1	0.1
아르메니아	1	0.1
스위스	1	0.1
티벳	1	0.1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이전직업 (세부분류)	통가	1	0.1
	투르크메니스탄	1	0.1
	짐바브웨	1	0.1
	강사	117	9.7
	연주자	96	7.9
	연구원	64	5.3
	코치	63	5.2
	교수	59	4.9
	감독	51	4.2
	직원	51	4.2
	큐레이터	50	4.1
	무용수	47	3.9
	사서	45	3.7
	교사	36	3.0
	관리자	31	2.6
	제작자	30	2.5
	공무원	28	2.3
	학생	24	2.0
	배우	23	1.9
	예술가	21	1.7
	프리랜서	19	1.6
	담당관	17	1.4
	안무가	15	1.2
	선수	15	1.2
	담당자	14	1.2
	디자이너	14	1.2
	작가	14	1.2
	전문가	14	1.2
	단원	12	1.0
	부장	11	0.9
	매니저	10	0.8
	언론인	10	0.8
	대표	9	0.7
	코디네이터	9	0.7
	학예사	9	0.7
	부국장	8	0.7
	연구관	7	0.6
	개발자	7	0.6
	팀장	7	0.6
	트레이너	6	0.5
조교수	5	0.4	
방송인	5	0.4	
편집자	5	0.4	
보조연구원	4	0.3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선임연구원	4	0.3
요리사	4	0.3
과장	4	0.3
박사	4	0.3
회원	4	0.3
경찰	3	0.2
감독관	3	0.2
조감독	3	0.2
책임자	3	0.2
부교수	3	0.2
전임강사	3	0.2
가수	3	0.2
음악가	3	0.2
고고학자	3	0.2
고문	3	0.2
컨설턴트	3	0.2
통역사	3	0.2
차장	3	0.2
보조코치	3	0.2
석사	3	0.2
부대표	2	0.2
부회장	2	0.2
상무	2	0.2
부부장	2	0.2
국장	2	0.2
조교	2	0.2
학과장	2	0.2
시인	2	0.2
작곡가	2	0.2
책임연구원	2	0.2
건축가	2	0.2
번역가	2	0.2
변호사	2	0.2
상담사	2	0.2
장인	2	0.2
전문관	2	0.2
비서	2	0.2
편집장	2	0.2
수석코치	2	0.2
가이드	2	0.2
관장	1	0.1
이사	1	0.1
임원	1	0.1
사무관	1	0.1
부의원	1	0.1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회장	1	0.1	
	부학과장	1	0.1	
	시간강사	1	0.1	
	소설가	1	0.1	
	아티스트	1	0.1	
	선임담당관	1	0.1	
	기술자	1	0.1	
	보조사서	1	0.1	
	보험계리사	1	0.1	
	분석가	1	0.1	
	수석큐레이터	1	0.1	
	심리학자	1	0.1	
	엔지니어	1	0.1	
	인류학자	1	0.1	
	사무원	1	0.1	
	직원	1	0.1	
	경호원	1	0.1	
	자원봉사자	1	0.1	
	현재직업 (세부분류)	프리랜서	160	14.7
		강사	94	8.6
		연주자	67	6.1
		연구원	52	4.8
교수		47	4.3	
코치		47	4.3	
큐레이터		35	3.2	
사서		35	3.2	
감독		34	3.1	
무용수		30	2.7	
교사		27	2.5	
직원		20	1.8	
대표		19	1.7	
학생		19	1.7	
담당관		18	1.6	
예술가		18	1.6	
제작자		18	1.6	
안무가		16	1.5	
관리자		15	1.4	
매니저		14	1.3	
부국장		13	1.2	
공무원		12	1.1	
부장		12	1.1	
선수		11	1.0	
관장		10	0.9	
조교수		10	0.9	
사무관		9	0.8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디자이너	9	0.8
전문가	9	0.8
학예사	9	0.8
담당자	8	0.7
박사	8	0.7
국장	7	0.6
작가	7	0.6
연구관	7	0.6
언론인	7	0.6
코디네이터	7	0.6
책임자	6	0.5
음악가	6	0.5
팀장	6	0.5
단원	5	0.5
과장	5	0.5
회원	5	0.5
부교수	4	0.4
학과장	4	0.4
개발자	4	0.4
건축가	4	0.4
사무원	4	0.4
차장	4	0.4
경찰	3	0.3
감독관	3	0.3
가수	3	0.3
고문	3	0.3
편집자	3	0.3
석사	3	0.3
부관장	2	0.2
회장	2	0.2
위원	2	0.2
학장	2	0.2
배우	2	0.2
보조연구원	2	0.2
선임연구원	2	0.2
책임연구원	2	0.2
고고학자	2	0.2
방송인	2	0.2
번역가	2	0.2
보조사서	2	0.2
분석가	2	0.2
수석큐레이터	2	0.2
엔지니어	2	0.2
요리사	2	0.2
컨설턴트	2	0.2

구분	참여자 수(명)	비중(%)
물리치료사	2	0.2
보조제작자	2	0.2
선임사서	2	0.2
편집장	2	0.2
수석코치	2	0.2
트레이너	2	0.2
가이드	2	0.2
부대표	1	0.1
부회장	1	0.1
상무	1	0.1
이사	1	0.1
사무국장	1	0.1
조감독	1	0.1
부감독	1	0.1
의장	1	0.1
시간강사	1	0.1
전임강사	1	0.1
교장	1	0.1
소설가	1	0.1
아티스트	1	0.1
작곡가	1	0.1
단장	1	0.1
선임담당관	1	0.1
기술자	1	0.1
변호사	1	0.1
보험계리사	1	0.1
상담사	1	0.1
인류학자	1	0.1
전문관	1	0.1
통역사	1	0.1
수석사서	1	0.1
승무원	1	0.1
비서	1	0.1
직원	1	0.1
참가자	1	0.1



# 제2장 통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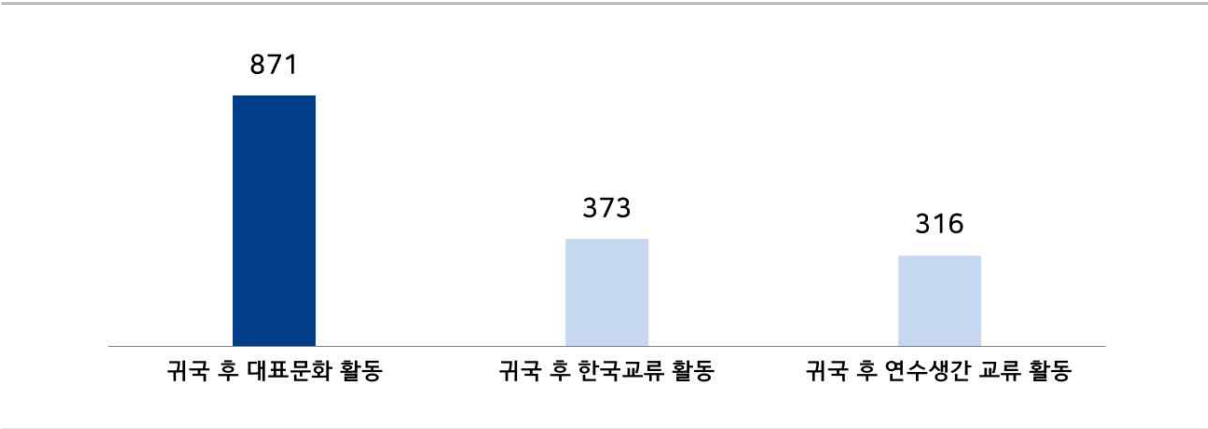
# 1 현황 분석

## 1.1 성과 발생 현황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05개 국가의 참가자 1,262명 중 성과 관련 응답자는 295명<sup>2)</sup>으로, 발생한 성과는 총 1,560건임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871건,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373건,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316건

[그림 5] 성과 발생 현황

(단위 : 개)



[표 7] 성과 발생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성과 발생 현황	
	건수	비중(%)
	(1,560)	100.0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sup>3)</sup>	(871)	55.8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sup>4)</sup>	(373)	23.9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sup>5)</sup>	(316)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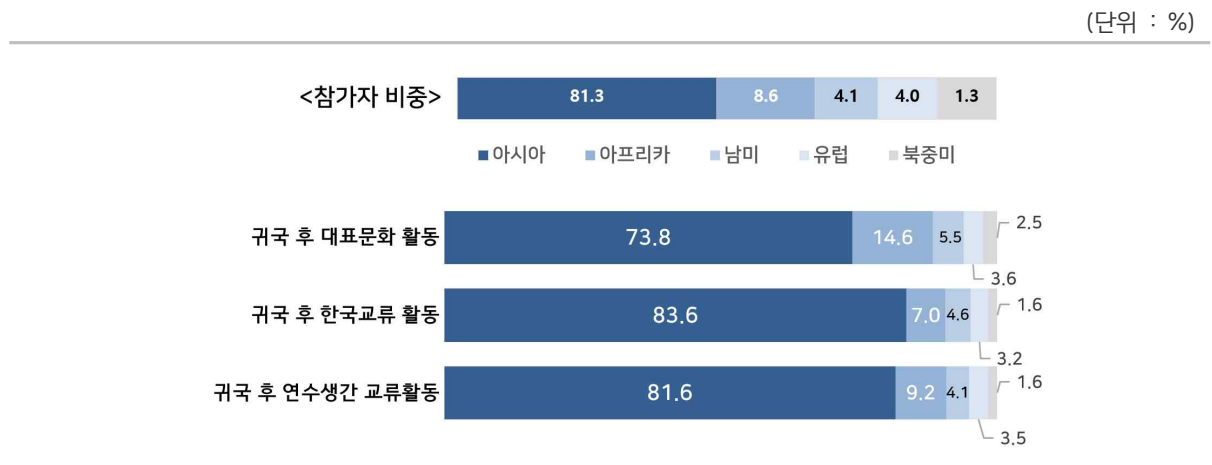
(Base = 전체 성과 사례 수)

2)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응답자 278명,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응답자 238명,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응답자 261명  
 3) 연수 종료 후 연수생이 자국과 한국(재입국), 그리고 제3국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한 문화사업 및 문화 활동  
 4) 연수생이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한국의 문화기관이나 문화 전문가와 수행한 일련의 모든 문화활동을 포함  
 5) 연수 종료 이후 참가자 간 교류 및 협업 활동을 의미함

## 1.2 대륙별 성과

- 성과 유형에 무관하게 ‘아시아(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73.8%,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83.6%,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81.6%)’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발생함
  - 대륙별 성과 현황은 아시아 > 아프리카 > 남미 > 유럽 > 북중미 순임
-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83.6%)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6] 대륙별 성과 현황



[표 8] 대륙별 성과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871)	100.0	(373)	100.0	(316)	100.0
아시아	(643)	73.8%	(312)	83.6%	(258)	81.6%
아프리카	(127)	14.6%	(26)	7.0%	(29)	9.2%
남미	(48)	5.5%	(17)	4.6%	(13)	4.1%
유럽	(31)	3.6%	(12)	3.2%	(11)	3.5%
북중미	(22)	2.5%	(6)	1.6%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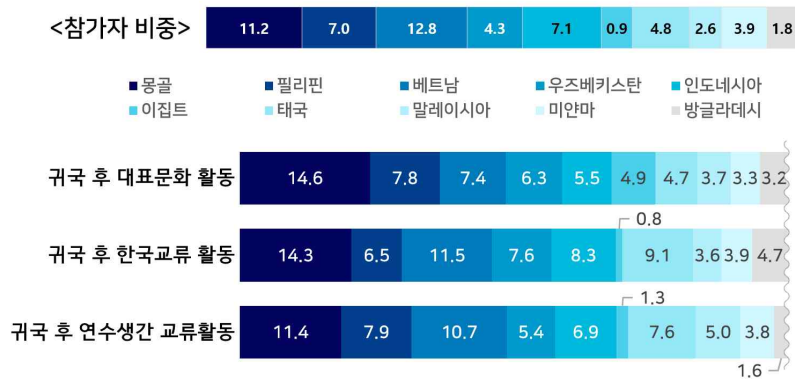
(Base = 전체 성과 사례 수)

### 1.3 국가별 성과

- 국가별로는 '몽골(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14.6%,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14.3%, 귀국 후 연수생 간 교류 활동 11.4%)'에서 발생한 성과가 가장 많음
  - 국가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은 몽골 > 필리핀 > 베트남 > 우즈베키스탄 > 인도네시아 순임
  - 국가별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은 몽골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순임
  - 국가별 귀국 후 연수생 간 교류 활동은 몽골 > 베트남 > 필리핀 > 태국 > 인도네시아 순임

[그림 7] 국가별 성과 현황 - Top10 국가

(단위 : %)



[표 9] 국가별 성과 현황 - Top10 국가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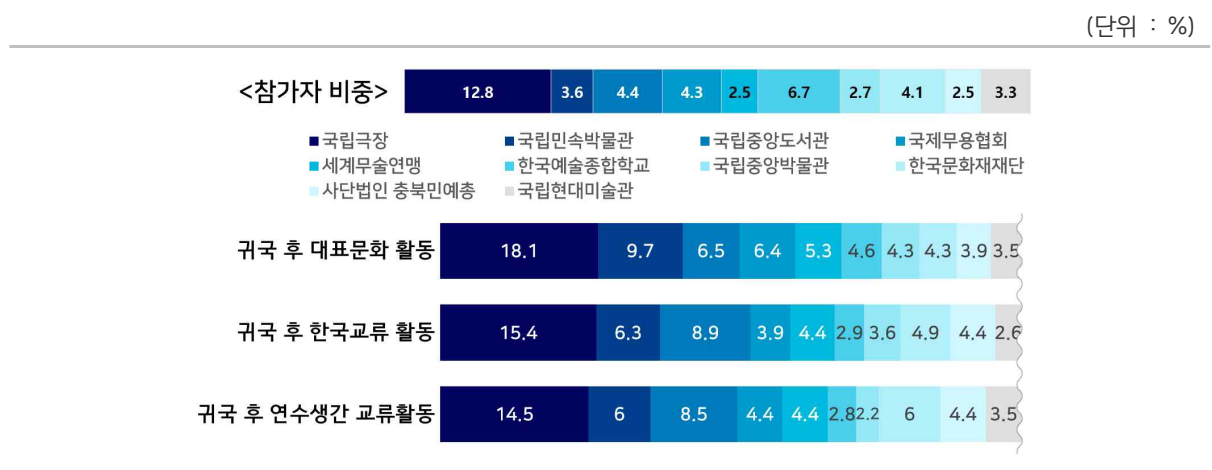
구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귀국 후 연수생 간 교류 활동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TOP10 계	(537)	61.4	(270)	70.3	(195)	61.5
몽골	(128)	14.6	(55)	14.3	(36)	11.4
필리핀	(68)	7.8	(25)	6.5	(25)	7.9
베트남	(65)	7.4	(44)	11.5	(34)	10.7
우즈베키스탄	(55)	6.3	(29)	7.6	(17)	5.4
인도네시아	(48)	5.5	(32)	8.3	(22)	6.9
이집트	(43)	4.9	(3)	0.8	(4)	1.3
태국	(41)	4.7	(35)	9.1	(24)	7.6
말레이시아	(32)	3.7	(14)	3.6	(16)	5.0
미얀마	(29)	3.3	(15)	3.9	(12)	3.8
방글라데시	(28)	3.2	(18)	4.7	(5)	1.6

(Base = 전체 성과 사례 수, Top10 국가, 정보 없음 제외)

## 1.4 기관별 성과

- 해외 국가와 교류하는 국내 기관 중 '국립극장(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18.1%,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15.4%,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14.5%)'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유발함
  - 기관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은 국립극장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중앙도서관 순임
  - 기관별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은 국립극장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민속박물관 순임
  - 기관별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은 국립극장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민속박물관 순임

[그림 8] 기관별 성과 현황 - Top10 기관



[표 10] 기관별 성과 현황 - Top10 기관

(단위 : 개, %)

구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TOP10 계	(583)	66.6	(220)	57.3	(180)	56.8
국립극장	(158)	18.1	(59)	15.4	(46)	14.5
국립민속박물관	(85)	9.7	(24)	6.3	(19)	6.0
국립중앙도서관	(57)	6.5	(34)	8.9	(27)	8.5
국제무용협회	(56)	6.4	(15)	3.9	(14)	4.4
세계무술연맹	(46)	5.3	(17)	4.4	(14)	4.4
한국예술종합학교	(40)	4.6	(11)	2.9	(9)	2.8
국립중앙박물관	(38)	4.3	(14)	3.6	(7)	2.2
한국문화재단	(38)	4.3	(19)	4.9	(19)	6.0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34)	3.9	(17)	4.4	(14)	4.4
국립현대미술관	(31)	3.5	(10)	2.6	(1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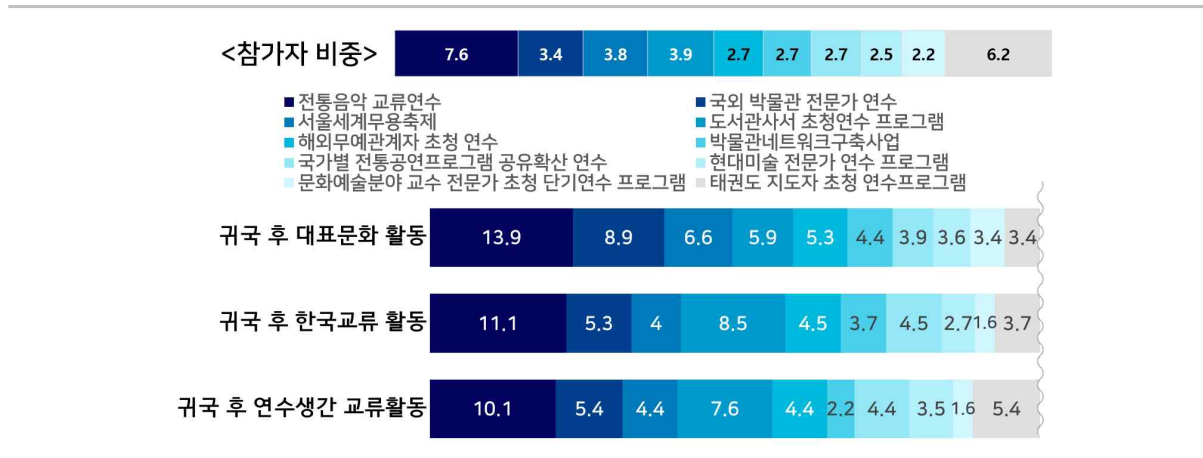
(Base = 전체 성과 사례 수, Top10 기관, 정보 없음 제외)

## 1.5 사업(프로그램)별 성과

- 국내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프로그램) 중에서는 '전통음악 교류연수(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13.9%,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11.1%,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10.1%)'가 가장 많은 성과를 창출함
  - 사업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은 전통음악 교류연수 > 국외 박물관 전문가 연수 > 서울세계무용축제 순임
  - 사업별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과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은 각각 전통음악 교류연수 > 도서관사서 초청연수 프로그램 > 국외 박물관 전문가 연수 순임

[그림 9] 사업별 성과 현황 - Top10 프로그램

(단위 : %)



[표 11] 사업별 성과 현황 - Top10 프로그램

(단위 : 개, %)

구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TOP10 계	(511)	59.3	(187)	49.6	(155)	49.1
전통음악 교류연수	(120)	13.9	(42)	11.1	(32)	10.1
국외 박물관 전문가 연수	(77)	8.9	(20)	5.3	(17)	5.4
서울세계무용축제	(56)	6.5	(15)	4.0	(14)	4.4
도서관사서 초청연수	(51)	5.9	(32)	8.5	(24)	7.6
해외무예관계자 초청 연수	(46)	5.3	(17)	4.5	(14)	4.4
박물관네트워크구축사업	(38)	4.4	(14)	3.7	(7)	2.2
국가별 전통공연프로그램 공유확산 연수	(34)	3.9	(17)	4.5	(14)	4.4
현대미술 전문가 연수	(31)	3.6	(10)	2.7	(11)	3.5
문화예술분야 교수 전문가 초청 단기연수	(29)	3.4	(6)	1.6	(5)	1.6
태권도 지도자 초청 연수	(29)	3.4	(14)	3.7	(17)	5.4

(Base = 전체 성과 사례 수, Top10 프로그램, 정보 없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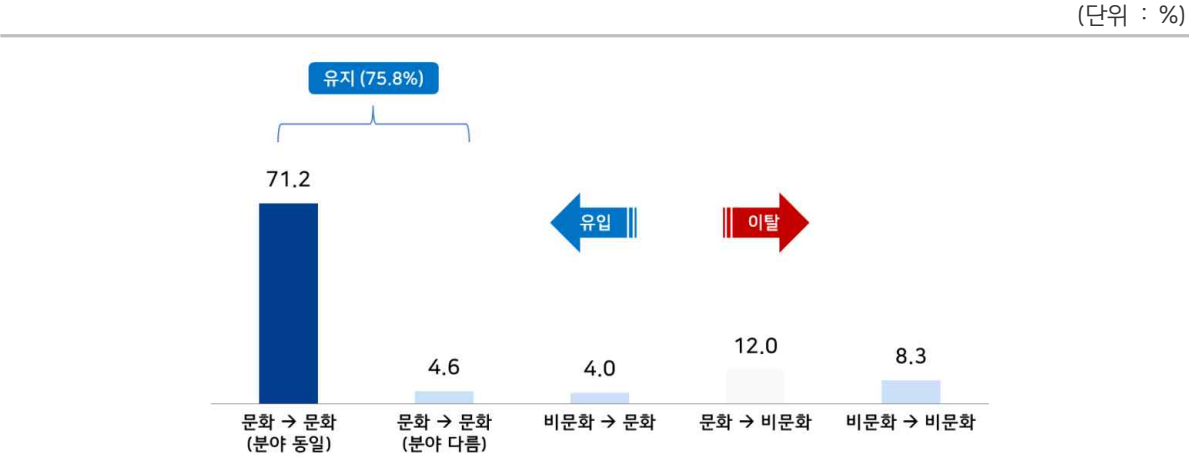
## 2 사업 효과 분석

### 2.1 참여자 종사 부문

#### 가. 지속성 : 문화분야 지속 종사

- 문화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 전후 종사상의 분야는 유지(75.8%)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한편, 문화 분야에서 비문화 분야로 이탈 비중은 12.0%가 있었음

[그림 10]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표 12]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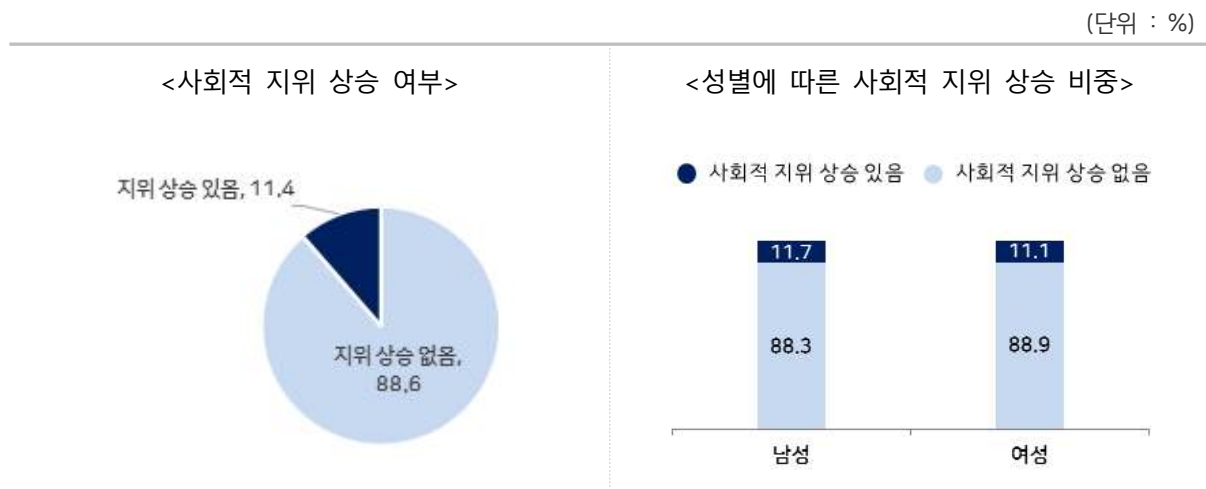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문화->문화 (분야 동일)	문화->문화 (분야 다름)	비문화->문화	문화->비문화	비문화->비문화	
전체	(1,052)	71.2	4.6	4.0	12.0	8.3	
성별	남성	(600)	70.0	4.8	4.3	11.8	9.0
	여성	(452)	72.8	4.2	3.5	12.2	7.3
연령 (참여당시 연령대)	10대	(1)	100.0	0.0	0.0	0.0	0.0
	20대	(432)	69.9	5.1	3.9	12.5	8.6
	30대	(437)	76.0	4.6	4.8	8.7	5.9
	40대	(113)	77.9	4.4	3.5	9.7	4.4
	50대	(15)	73.3	0.0	0.0	13.3	13.3
	60대	(1)	0.0	0.0	0.0	100.0	0.0

(Base = 업종, 정보 없음 제외)

## 나. 효과성 : 사회적 지위 상승

- 문화동반자 프로그램 참여 전후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위가 상승 경우가 11.4%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사회적 지위가 상승 비중은 남성이 11.7%, 여성이 11.1%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



[표 13]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

(단위 : %)

구 분		사례수	사회적 지위 상승 없음	사회적 지위 상승 있음
전체		(1,052)	88.6	11.4
성별	남성	(600)	88.3	11.7
	여성	(452)	88.9	11.1
연령 (참여당시 연령대)	10대	(1)	100.0	0.0
	20대	(432)	86.8	13.2
	30대	(437)	88.3	11.7
	40대	(113)	91.2	8.8
	50대	(15)	100.0	0.0
	60대	(1)	100.0	0.0
	모름	(53)	96.2	3.8

(Base =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사례 수, 정보 없음 제외)



## 2.2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부문

### 가. 활동 형태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관련 성과 발생은 '공연/전시참가(35.4%)'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16.2%)', '문화체험(13.1%)', '제작/기획/디자인(12.6%)' 순임

[그림 12]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단위 : %)



[표 14]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공연/전시참가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문화체험	제작/기획/디자인	학업/어학	연구/조사	실습/연수	구인/구직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전체	(871)	35.4	16.2	13.1	12.6	8.3	7.8	4.1	2.3	0.2	
성별	남성	(513)	37.0	14.8	14.8	11.1	9.5	5.8	4.3	1.4	0.0
	여성	(358)	32.4	18.2	10.5	14.7	6.7	10.6	0.0	2.1	0.0
연령	20대	(356)	42.4	14.8	9.6	12.8	7.4	3.9	0.0	0.0	0.0
	30대	(370)	34.8	12.9	15.1	13.2	7.5	11.1	3.9	0.0	0.0
	40대	(121)	22.1	23.0	18.0	9.8	11.5	9.0	17.1	4.9	0.0
	50대	(1)	0.0	100.0	0.0	0.0	0.0	0.0	2.6	0.0	0.0
	모름	(23)	0.0	47.8	8.7	13.0	17.4	8.7	0.0	14.7	2.9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을 발생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활동들은 '공연/전시 참여 (31.9%)', '문화체험(30.8%)'과 같이 단순 문화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 자국에서의 활동은 '공연/전시참가(33.6%)'외에 '제작/기획/디자인(21.6%)'과 같이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발생 국가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공연/전시 참가	오프라인 친목/ 정보 교류	문화 체험	제작 /기획/ 디자인	학업 /어학	연구 /조사	실습 /연수	구인/ 구직	온라인 친목 /정보 교류
전체	(871)	35.4	16.2	13.1	12.6	8.3	7.8	4.1	2.3	0.2
발생 국가	한국	(263)	31.9	11.8	30.8	3.8	12.5	4.2	4.6	0.4
	자국	(375)	33.6	14.1	2.9	21.6	7.7	9.9	5.3	4.5
	3국	(233)	42.1	24.5	9.4	8.2	4.3	8.6	1.7	0.9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 세부적인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작/기획/디자인' 비중이 높은 분야로는 '전통문화 (22.7%)', '관광(66.7%)'인 것으로 나타남

[표 16]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활동 분야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공연/전시 참가	문화 체험	제작 /기획/ 디자인	오프라인 친목/ 정보 교류	실습 /연수	연구 /조사	학업 /어학	구인/ 구직	온라인 친목 /정보 교류
전체	(522)	47.1	9.8	14.0	11.3	3.5	5.7	6.0	2.3	0.4
활동 분야	음악	(140)	67.1	6.4	2.1	12.9	4.3	2.1	3.6	1.4
	전통문화	(97)	36.1	12.4	22.7	12.4	0.0	8.2	6.2	2.1
	스포츠	(61)	62.3	9.8	6.6	4.9	0.0	0.0	16.4	0.0
	관광	(51)	11.8	5.9	66.7	0.0	3.9	11.8	0.0	0.0
	출판	(41)	12.2	14.6	2.4	19.5	17.1	29.3	0.0	4.9
	무용	(38)	55.3	13.2	5.3	18.4	2.6	0.0	5.3	0.0
	미술	(34)	50.0	11.8	5.9	8.8	0.0	2.9	2.9	14.7
	연극	(19)	63.2	5.3	0.0	15.8	5.3	0.0	0.0	5.3
	영화	(17)	52.9	5.9	23.5	11.8	0.0	0.0	5.9	0.0
	방송/통신/미디어	(16)	12.5	25.0	6.3	12.5	6.3	0.0	37.5	0.0
	게임	(7)	85.7	0.0	0.0	14.3	0.0	0.0	0.0	0.0
만화/애니	(1)	100.0	0.0	0.0	0.0	0.0	0.0	0.0	0.0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분야별 정보 없음(349건) 제외)

- 직업별로는 대체로 '공연/전시 참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티스트가 51.1%로 '공연/전시 참가' 비중이 가장 높았음

[표 17]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형태 - 직업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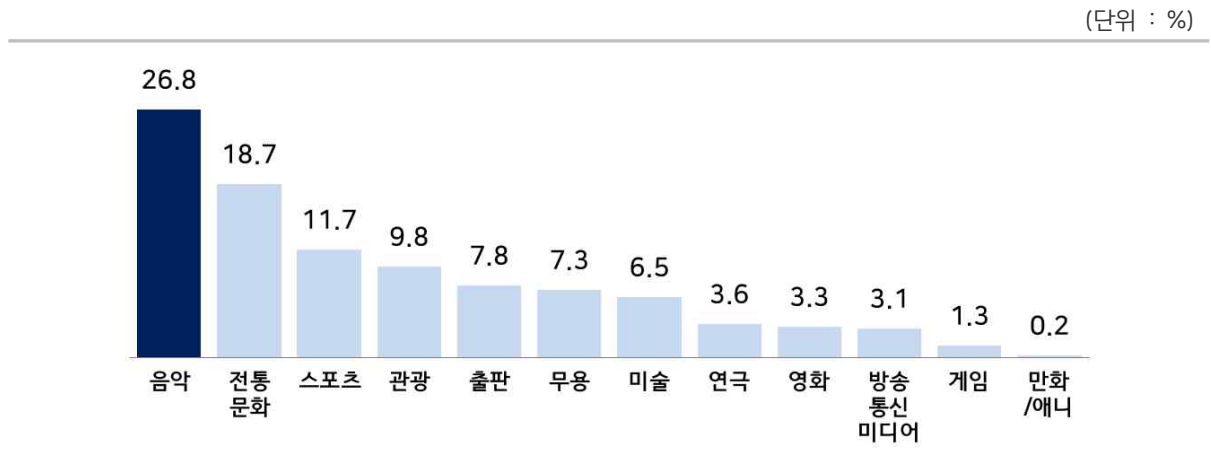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공연/ 전시 참가	오프 라인 친목/ 정보 교류	문화 체험	제작 /기획/ 디자인	학업 /어학	연구 /조사	실습 /연수	구인/ 구직	온라인 친목 /정보 교류
전체	(871)	35.4	16.2	13.1	12.6	8.3	7.8	4.1	2.3	0.2
현재 직업	경영자	(45)	31.1	13.3	4.4	15.6	17.8	17.8	0.0	0.0
	공무원	(10)	40.0	20.0	0.0	10.0	10.0	20.0	0.0	0.0
	관리자	(117)	35.9	21.4	8.5	15.4	8.5	4.3	4.3	1.7
	교육자	(178)	36.5	11.8	15.7	12.9	9.6	6.7	2.8	3.4
	아티스트	(131)	51.1	9.9	11.5	12.2	3.8	3.8	3.1	3.8
	연구자	(53)	43.4	15.1	13.2	3.8	5.7	13.2	5.7	0.0
	전문가	(147)	31.3	23.1	18.4	12.2	4.8	6.8	2.7	0.7
	민간문화기관 재직자	(101)	18.8	23.8	13.9	17.8	7.9	14.9	1.0	2.0
	체육인	(24)	33.3	8.3	20.8	8.3	12.5	0.0	16.7	0.0
	학생	(32)	28.1	9.4	18.8	12.5	21.9	3.1	3.1	3.1
	프리랜서	(4)	25.0	0.0	0.0	0.0	50.0	25.0	0.0	0.0
	기타	(10)	30.0	20.0	0.0	10.0	10.0	20.0	0.0	10.0
모름	(19)	36.8	5.3	0.0	0.0	0.0	0.0	47.4	10.5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 나. 활동 분야

- 분야별로는 '음악(26.8%)'의 성과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통 문화(18.7%)', '스포츠(11.7%)' 순임

[그림 13]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분야



[표 18]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분야 - 발생 국가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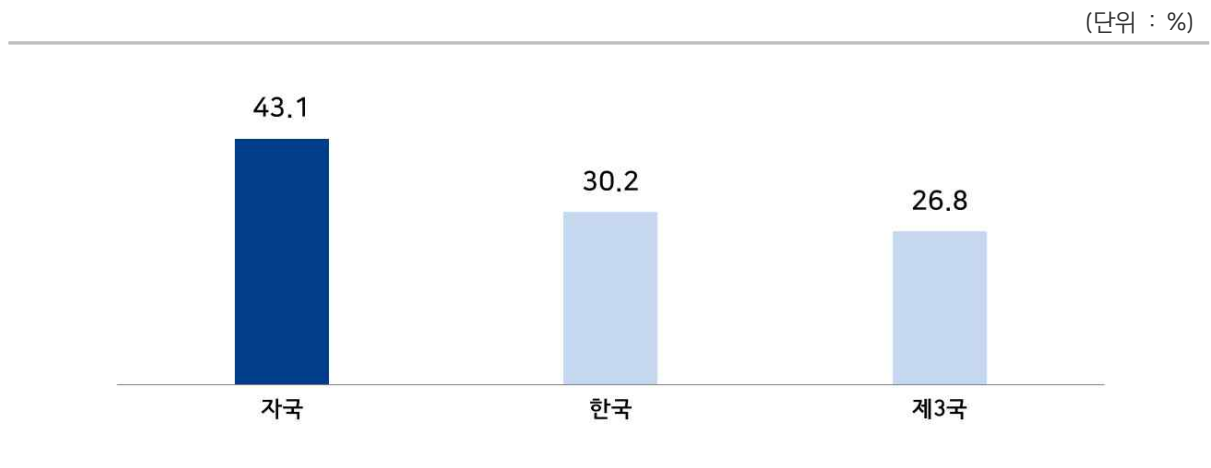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음악	전통 문화	스포츠	관광	출판	무용	미술	연극	영화	방송 통신 미디어	게임	만화 애니	
전체	(523)	26.8	18.7	11.7	9.8	7.8	7.3	6.5	3.6	3.3	3.1	1.3	0.2	
발생 국가	자국	(207)	30.0	17.9	10.6	1.4	11.6	7.2	5.8	4.8	5.8	2.9	1.9	0.0
	한국	(168)	19.0	21.4	16.1	19.0	2.4	6.5	6.0	2.4	2.4	3.6	1.2	0.0
	3국	(148)	31.1	16.9	8.1	10.8	8.8	8.1	8.1	3.4	0.7	2.7	0.7	0.7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국가별 정보 없음(348건) 제외)

## 다. 발생 국가

- 발생 국가에 따른 성과 발생 비중은 '자국(43.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한국(30.2%)', '제3국(26.8%)'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46.9%)이 남성(40.4%)보다 자국에서의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40대(각각 45.9%, 43.8%)가 자국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 국가



[표 19]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 국가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국	한국	제3국
전체		(871)	43.1	30.2	26.8
성별	남성	(513)	40.4	29.2	30.4
	여성	(358)	46.9	31.6	21.5
연령	20대	(356)	40.2	33.7	26.1
	30대	(370)	45.9	26.2	27.8
	40대	(121)	43.8	33.9	22.3
	50대	(1)	0.0	100.0	0.0
	모름	(23)	39.1	17.4	43.5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 활동 형태별로 보면, 자국에서의 비중이 높은 활동 형태는 '제작/기획/디자인'(73.6%), '구인/구직'(85.0%)인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문화체험'은 한국(71.1%)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임

[표 20]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 국가 - 활동 형태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국	한국	제3국
전체		(871)	43.1	30.2	26.8
활동 형태	공연/전시참가	(308)	40.9	27.3	31.8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141)	37.6	22.0	40.4
	문화체험	(114)	9.6	71.1	19.3
	제작/기획/디자인	(110)	73.6	9.1	17.3
	학업/어학	(72)	40.3	45.8	13.9
	연구/조사	(68)	54.4	16.2	29.4
	실습/연수	(36)	55.6	33.3	11.1
	구인/구직	(20)	85.0	5.0	10.0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2)	50.0	0.0	50.0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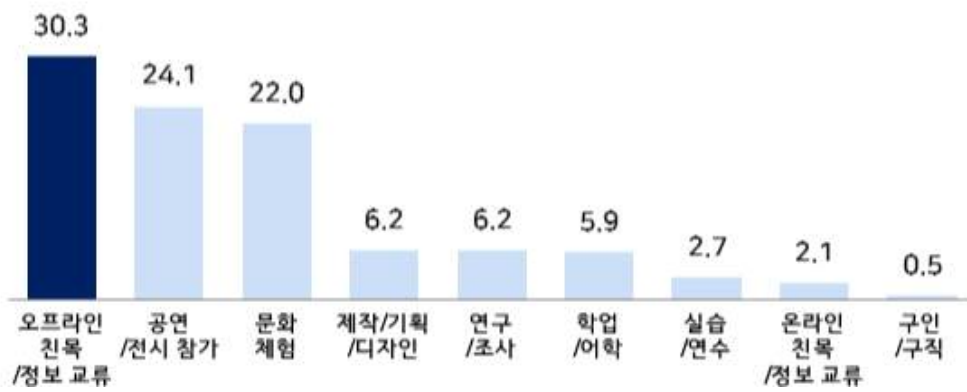
## 2.3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부문

### 가. 활동 형태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은 '공연/전시 참가(30.3%)'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연/전시 참가(24.1%)', '문화체험(22.0%)' 순임

[그림 15]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단위 : %)



[표 21]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	공연/전시 참가	문화 체험	제작/기획/디자인	연구/조사	학업/어학	실습/연수	온라인 친목/정보 교류	구인/구직	
전체	(373)	30.3	24.1	22.0	6.2	6.2	5.9	2.7	2.1	0.5	
성별	남성	(227)	31.7	26.0	21.6	5.3	6.6	4.0	3.5	1.3	0.0
	여성	(146)	28.1	21.2	22.6	7.5	5.5	8.9	1.4	3.4	1.4
연령	20대	(163)	25.8	32.5	20.9	3.7	3.7	6.1	3.1	3.1	1.2
	30대	(154)	26.0	17.5	25.3	11.0	9.7	5.8	2.6	1.9	0.0
	40대	(46)	50.0	21.7	19.6	0.0	2.2	6.5	0.0	0.0	0.0
	50대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모름	(8)	75.0	0.0	0.0	0.0	12.5	0.0	12.5	0.0	0.0

(Base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건 수)

- 성과 활동을 발생 국가별로 살펴보면,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은 '문화체험(28.3%)',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26.7%)', '공연/전시참가(25.5%)' 순임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중 자국에서는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37.7%)' 비중이 높음

[표 22]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발생 국가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공연/전시참가	문화체험	제작/기획/디자인	연구/조사	학업/어학	실습/연수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구인/구직
전체	(373)	30.3	24.1	22.0	6.2	6.2	5.9	2.7	2.1	0.5
발생 국가	한국	(251)	26.7	25.5	28.3	2.4	6.4	7.2	3.2	0.4
	자국	(114)	37.7	20.2	7.9	14.9	6.1	3.5	1.8	0.9
	3국	(6)	33.3	50.0	16.7	0.0	0.0	0.0	0.0	0.0
	정보 없음	(2)	50.0	0.0	50.0	0.0	0.0	0.0	0.0	0.0

(Base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건 수)

- 세부적인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문화체험'에서는 '관광(58.5%)'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23]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활동 분야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공연/전시참가	문화체험	제작/기획/디자인	연구/조사	학업/어학	실습/연수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구인/구직
전체	(200)	20.0	34.0	29.5	7.5	3.5	2.5	2.0	1.0	0.0
활동 분야	음악	(49)	12.2	55.1	26.5	2.0	0.0	0.0	4.1	0.0
	관광	(41)	22.0	4.9	58.5	0.0	2.4	9.8	2.4	0.0
	전통문화	(33)	21.2	36.4	27.3	15.2	0.0	0.0	0.0	0.0
	스포츠	(28)	14.3	42.9	28.6	3.6	0.0	0.0	10.7	0.0
	출판	(16)	37.5	0.0	6.3	25.0	25.0	6.3	0.0	0.0
	무용	(12)	0.0	83.3	16.7	0.0	0.0	0.0	0.0	0.0
	연극	(6)	33.3	16.7	16.7	33.3	0.0	0.0	0.0	0.0
	방송/통신/미디어	(5)	60.0	20.0	0.0	0.0	20.0	0.0	0.0	0.0
	영화	(4)	25.0	50.0	0.0	25.0	0.0	0.0	0.0	0.0
	미술	(3)	0.0	33.3	0.0	33.3	33.3	0.0	0.0	0.0
	게임	(2)	100.0	0.0	0.0	0.0	0.0	0.0	0.0	0.0
	광고	(1)	0.0	0.0	100.0	0.0	0.0	0.0	0.0	0.0

(Base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건 수, 활동 분야별 정보 없음(173건) 제외)



- 직업별로는 교육자와 아티스트는 '공연/전시참가(각각 42.0%, 40.4%)' 비중이 높았고, 경영자, 관리자, 연구자는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24]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형태 - 직업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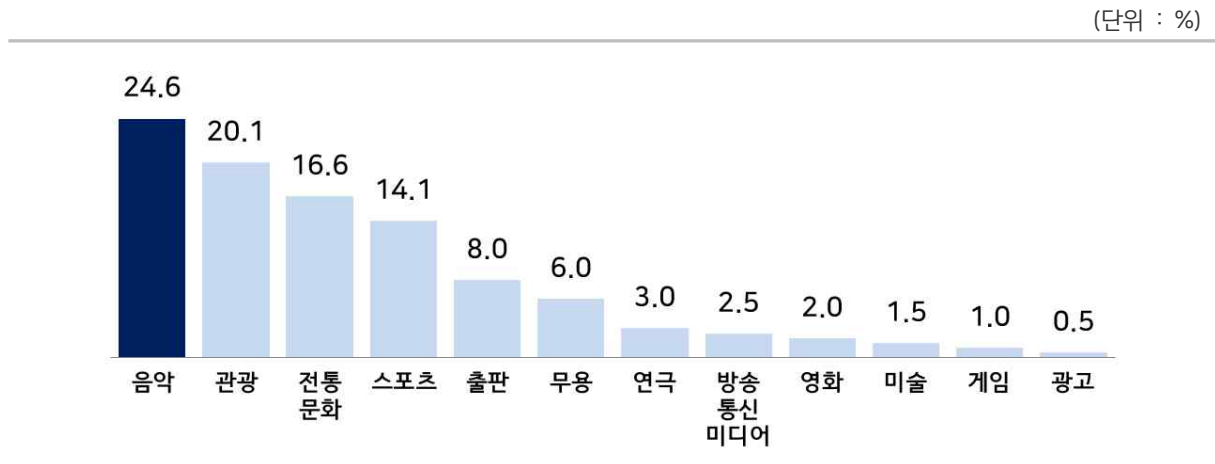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공연/전시참가	문화체험	제작/기획/디자인	연구/조사	학업/어학	실습/연수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구인/구직
전체	(373)	30.3	24.1	22.0	6.2	6.2	5.9	2.7	2.1	0.5
현재 직업	경영자	(25)	40.0	28.0	12.0	0.0	12.0	4.0	4.0	0.0
	공무원	(5)	60.0	0.0	0.0	0.0	20.0	0.0	0.0	20.0
	관리자	(57)	43.9	21.1	21.1	5.3	1.8	1.8	1.8	3.5
	교육자	(69)	20.3	42.0	18.8	2.9	1.4	8.7	4.3	1.4
	아티스트	(52)	13.5	40.4	25.0	11.5	0.0	7.7	0.0	1.9
	연구자	(19)	42.1	5.3	10.5	0.0	31.6	5.3	0.0	5.3
	전문가	(55)	36.4	14.5	21.8	7.3	12.7	3.6	1.8	0.0
	민간문화기관 재직자	(49)	34.7	4.1	38.8	10.2	4.1	6.1	2.0	0.0
	체육인	(12)	16.7	25.0	41.7	0.0	0.0	0.0	16.7	0.0
	학생	(17)	35.3	11.8	0.0	0.0	5.9	23.5	5.9	11.8
	프리랜서	(2)	0.0	0.0	100.0	0.0	0.0	0.0	0.0	0.0
	기타	(7)	14.3	28.6	0.0	42.9	14.3	0.0	0.0	0.0
모름	(4)	0.0	75.0	25.0	0.0	0.0	0.0	0.0	0.0	

(Base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건 수)

## 나. 활동 분야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분야별로는 '음악(24.6%)'의 성과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관광(20.1%)', '전통문화(16.6%)' 순임

[그림 16]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분야



[표 25]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분야 - 발생 국가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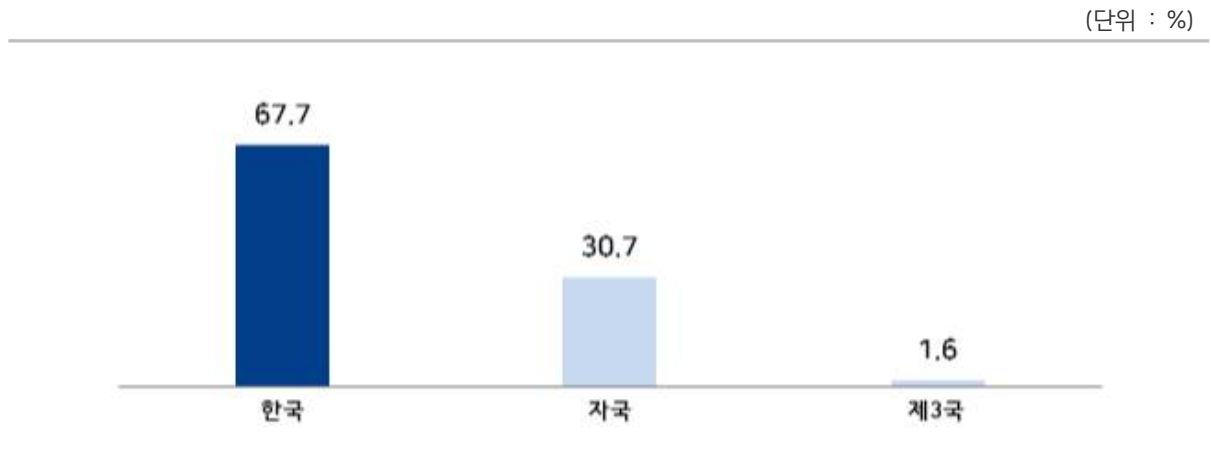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음악	관광	전통 문화	스포츠	출판	무용	연극	방송 통신 미디어	영화	미술	게임	광고	
전체	(199)	24.6	20.1	16.6	14.1	8.0	6.0	3.0	2.5	2.0	1.5	1.0	0.5	
발생 국가	한국	(148)	22.3	23.6	16.2	16.9	6.8	7.4	0.7	2.0	1.4	0.7	1.4	0.7
	자국	(49)	30.6	10.2	18.4	6.1	10.2	2.0	10.2	4.1	4.1	4.1	0.0	0.0
	3국	(2)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Base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건 수, 발생 국가별 정보 없음(174건) 제외)

## 다. 발생 국가

- 지역에 따른 성과 발생 비중은 '한국(6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국(30.7%)', '제3국(1.6%)' 순임

[그림 17]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 국가



[표 26]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 국가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국	한국	제3국
전체		(371)	67.7	30.7	1.6
성별	남성	(225)	69.3	28.4	2.2
	여성	(146)	65.1	34.2	0.7
연령	20대	(163)	66.9	31.9	1.2
	30대	(152)	65.8	32.2	2.0
	40대	(46)	80.4	19.6	0.0
	50대	(2)	0.0	100.0	0.0
	모름	(8)	62.5	25.0	12.5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성 및 연령 정보 없음(2건) 제외)

[표 27]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 지역 - 활동 형태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한국	자국	제3국
전체		(371)	67.7	30.7	1.6
활동 형태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112)	59.8	38.4	1.8
	공연/전시참가	(90)	71.1	25.6	3.3
	문화체험	(81)	87.7	11.1	1.2
	제작/기획/디자인	(23)	26.1	73.9	0.0
	연구/조사	(23)	69.6	30.4	0.0
	학업/어학	(22)	81.8	18.2	0.0
	실습/연수	(10)	80.0	20.0	0.0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8)	0.0	100.0	0.0
	구인/구직	(2)	50.0	50.0	0.0

(Base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발생건 수, 활동 형태별 정보 없음(2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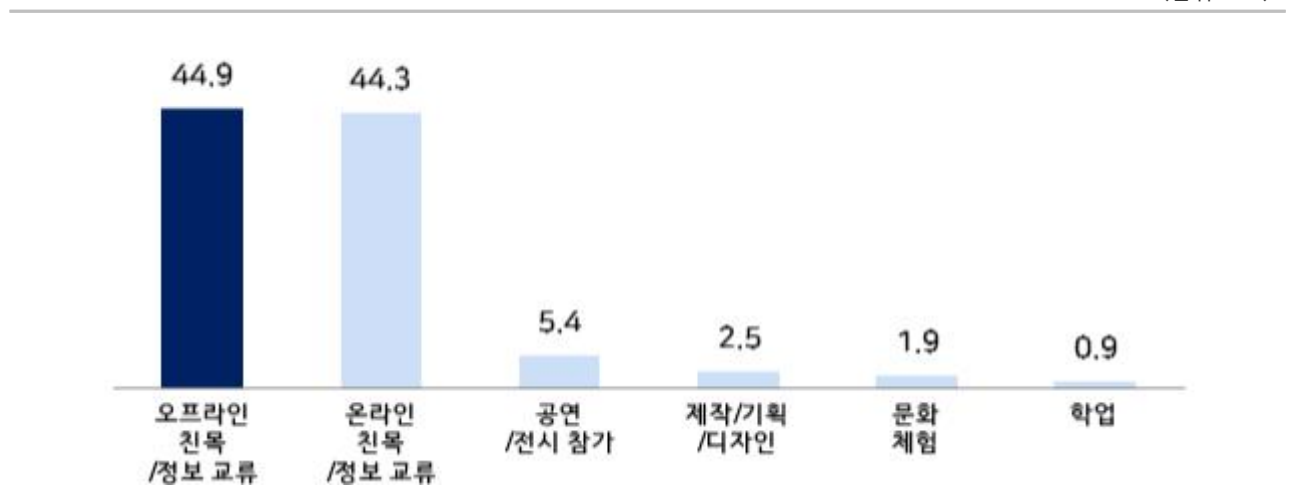
## 2.4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부문

### 가. 활동 형태

- 활동에 따른 성과 발생 비중은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44.9%)', '온라인 친목/정보교류(44.3%)' 순임

[그림 18]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단위 : %)



[표 28]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	온라인 친목/정보 교류	공연/전시 참가	제작/기획/디자인	문화 체험	학업	
전체	(316)	44.9	44.3	5.4	2.5	1.9	0.9	
성별	남자	(178)	44.4	44.9	4.5	2.2	2.8	1.1
	여자	(138)	45.7	43.5	6.5	2.9	0.7	0.7
연령	20대	(135)	41.5	44.4	7.4	3.7	3.0	0.0
	30대	(129)	49.6	45.7	3.1	0.0	1.6	0.0
	40대	(43)	41.9	44.2	4.7	2.3	0.0	7.0
	50대	(1)	100.0	0.0	0.0	0.0	0.0	0.0
	모름	(8)	37.5	25.0	12.5	25.0	0.0	0.0

(Base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건 수)

- 국가별로 살펴보면, 자국에서는 '온라인 친목/정보 교류(47.9%)',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46.2%)'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표 29]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발생 국가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 /정보 교류	온라인 친목 /정보 교류	공연 /전시 참가	제작/기획 /디자인	문화 체험	학업	
전체	(316)	44.9	44.3	5.4	2.5	1.9	0.9	
발생 국가	한국	(19)	26.3	5.3	31.6	5.3	26.3	5.3
	자국	(290)	46.2	47.9	3.1	2.1	0.0	0.7
	3국	(4)	75.0	0.0	25.0	0.0	0.0	0.0
	정보 없음	(3)	0.0	0.0	33.3	33.3	33.3	0.0

(Base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건 수)

[표 30]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활동 분야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 /정보 교류	온라인 친목 /정보 교류	공연 /전시 참가	제작/기획 /디자인	문화 체험	학업	
전체	(45)	24.4	22.2	31.1	11.1	11.1	0.0	
활동 분야	음악	(18)	22.2	16.7	44.4	11.1	5.6	0.0
	스포츠	(8)	25.0	50.0	0.0	0.0	25.0	0.0
	무용	(6)	33.3	33.3	16.7	16.7	0.0	0.0
	전통문화	(3)	0.0	33.3	33.3	0.0	33.3	0.0
	출판	(3)	33.3	0.0	0.0	66.7	0.0	0.0
	관광	(3)	66.7	0.0	0.0	0.0	33.3	0.0
	미술	(2)	0.0	0.0	100.0	0.0	0.0	0.0
	영화	(1)	0.0	0.0	100.0	0.0	0.0	0.0
연극	(1)	0.0	0.0	100.0	0.0	0.0	0.0	

(Base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건 수, 활동 분야별 정보 없음(271건) 제외)

- 직업별로는 경영자, 관리자, 아티스트, 민간문화기관 재직자 등 다수의 참여자가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의 비중이 높았고, 교육자, 연구자, 전문가 등은 '온라인 친목/정보 교류'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형태 - 직업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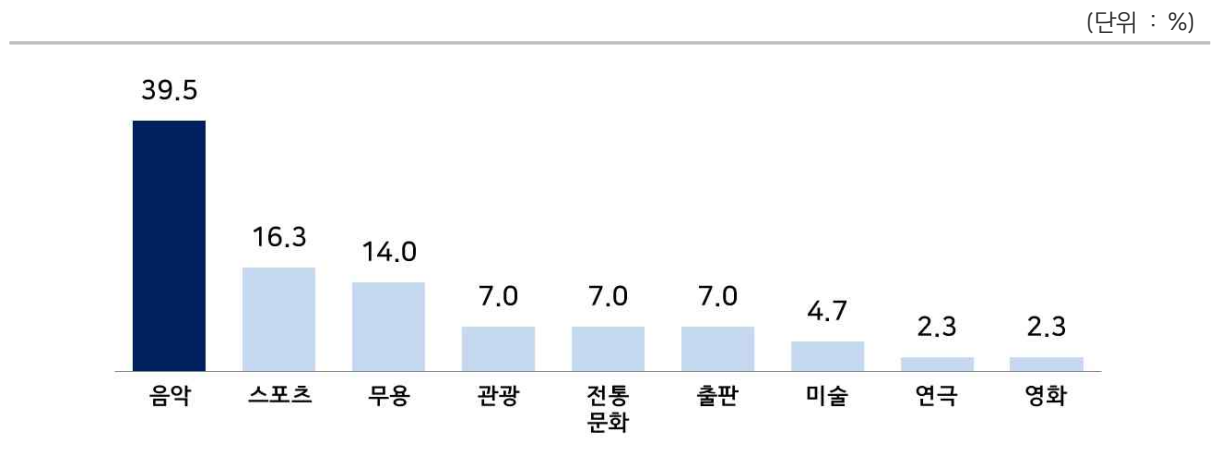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오프라인 친목 /정보 교류	온라인 친목 /정보 교류	공연 /전시 참가	제작/기획 /디자인	문화 체험	학업	
전체	(316)	44.9	44.3	5.4	2.5	1.9	0.9	
현재 직업	경영자	(14)	64.3	35.7	0.0	0.0	0.0	0.0
	공무원	(4)	25.0	75.0	0.0	0.0	0.0	0.0
	관리자	(49)	51.0	40.8	4.1	2.0	2.0	0.0
	교육자	(78)	39.7	42.3	9.0	7.7	1.3	0.0
	아티스트	(39)	51.3	33.3	15.4	0.0	0.0	0.0
	연구자	(17)	47.1	52.9	0.0	0.0	0.0	0.0
	전문가	(46)	32.6	56.5	0.0	2.2	4.3	4.3
	민간문화기관 재직자	(32)	56.3	37.5	0.0	0.0	3.1	3.1
	체육인	(15)	53.3	40.0	0.0	0.0	6.7	0.0
	학생	(9)	33.3	55.6	11.1	0.0	0.0	0.0
	프리랜서	(3)	33.3	66.7	0.0	0.0	0.0	0.0
	기타	(4)	50.0	25.0	25.0	0.0	0.0	0.0
모름	(6)	16.7	83.3	0.0	0.0	0.0	0.0	

(Base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건 수)

## 나. 활동 분야

- 분야별로는 '음악(39.5%)'의 성과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스포츠(16.3%)', '무용(14.0%)' 순임

[그림 19]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분야



[표 32]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분야 - 발생 국가별

(단위 : %, 개)

구 분	사례수	음악	스포츠	무용	관광	전통 문화	출판	미술	연극	영화	
전체	(43)	39.5	16.3	14.0	7.0	7.0	7.0	4.7	2.3	2.3	
발생국가	자국	(33)	42.4	18.2	15.2	6.1	3.0	9.1	0.0	3.0	3.0
	한국	(10)	30.0	10.0	10.0	10.0	20.0	0.0	2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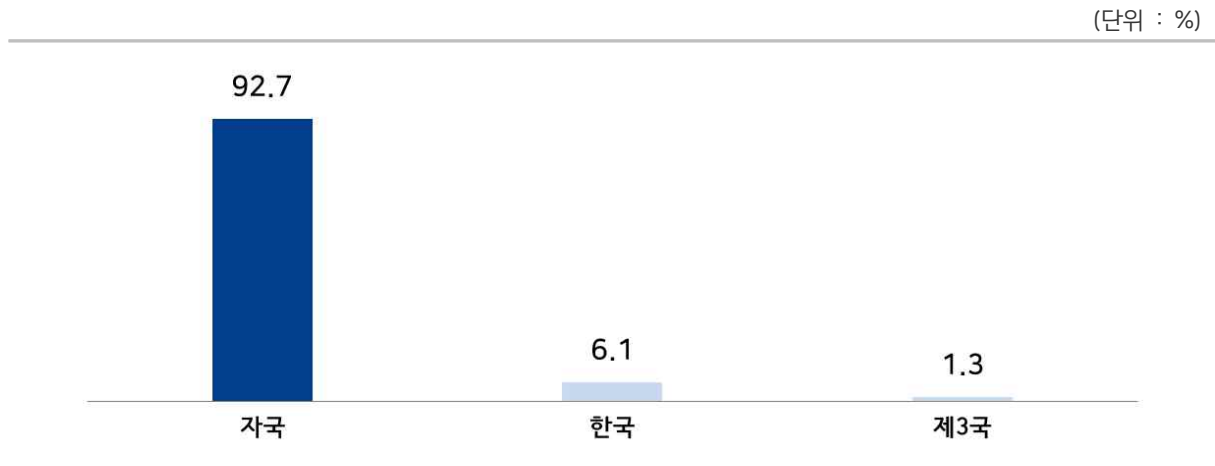
(Base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건 수, 발생 국가별 정보 없음(273건) 제외)



## 다. 발생 국가

- 지역에 따른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성과 발생 비중은 '자국(92.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한국(6.1%)', '제3국(1.3%)' 순임

[그림 20]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 국가



[표 33]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 국가 - 성별, 연령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국	한국	제3국
전체		(314)	92.7	6.1	1.3
성별	남성	(178)	92.1	6.7	1.1
	여성	(136)	93.4	5.1	1.5
연령	20대	(133)	88.7	9.8	1.5
	30대	(128)	96.1	2.3	1.6
	40대	(44)	95.5	4.5	0.0
	50대	(1)	100.0	0.0	0.0
	모름	(8)	87.5	12.5	0.0

(Base =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발생건 수, 성 및 연령별 정보 없음(2건) 제외)

[표 34]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 국가 - 활동 형태

(단위 : %, 개)

구 분		사례수	자국	한국	제3국
전체		(313)	92.7	6.1	1.3
활동 형태	오프라인 친목/정보교류	(142)	94.4	3.5	2.1
	온라인 친목/정보교류	(140)	99.3	0.7	0.0
	공연/전시참가	(16)	56.3	37.5	6.3
	제작/기획/디자인	(7)	85.7	14.3	0.0
	문화체험	(5)	0.0	100.0	0.0
	학업/어학	(3)	66.7	33.3	0.0

(Base =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발생건 수, 활동 형태별 정보 없음(3건) 제외)

# 제3장

##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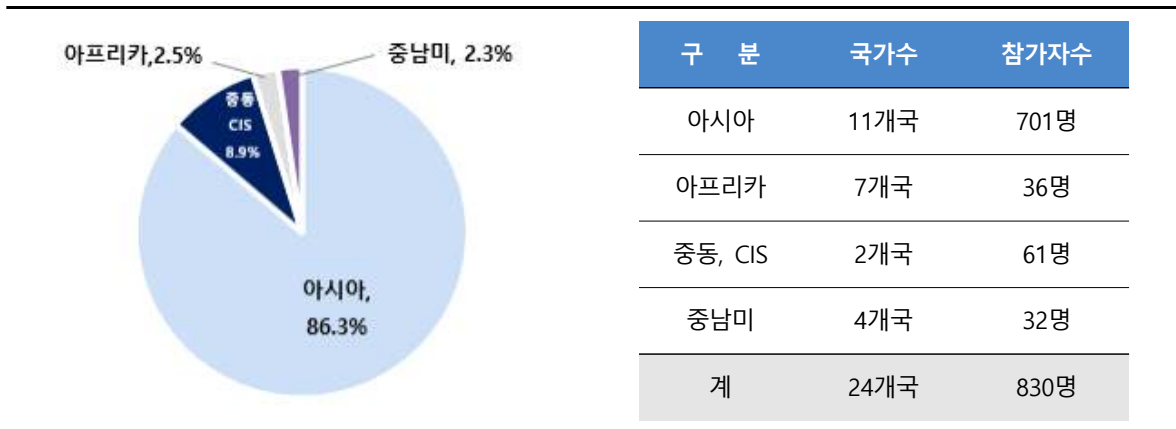
# 1 주요 성과 요약

- 본 과업에서의 문화동반자 사업 성과분석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참여자 1,262명을 대상으로 기본 정보와 295명으로부터 취합한 사업 참여 이후 활동 정보를 분석하였음

## 3.1 사업 목적 부합성

- 문화동반자 사업은 한국의 문화 분야 압축적 발전 경험을 ODA 수원국에 전수함으로써 수원국의 공공 문화사업 활성화 및 역량제고 기반 구축, 문화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ODA<sup>6)</sup> 사업임
-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본 사업의 참여자 105개국 1,262명 중 ODA수원국의 중점협력국 24개국 참여인원은 830명(65.8%)으로 수원국의 문화사업 활성화 및 역량제고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그림 21] ODA수원국 중점협력국 참여 현황



- 새로운 세계 경제의 협력 기반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의 해당 국가들의 참가자 수는 총 907명(신북방 국가 294명, 신남방 613명), 전체 참가자 1,262명 기준 71.9%로 문화동반자 사업은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에 문화 사절로서 역할과 기여하는 바가 큼

6)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odakorea.go.kr)

[표 35] 신북방 및 신남방 국가 참여현황

권역	국가	참여인원(명)	비중(%)
신북방	몽골	141	15.5
	우즈베키스탄	54	6.0
	카자흐스탄	32	3.5
	중국	31	3.4
	키르기스스탄	12	1.3
	아제르바이잔	7	0.8
	러시아	4	0.4
	타지키스탄	3	0.3
	우크라이나	3	0.3
	몰도바	3	0.3
	조지아	2	0.2
	투르크메니스탄	1	0.1
	아르메니아	1	0.1
	소계	294	32.4
	신남방	베트남	161
인도네시아		89	9.8
필리핀		88	9.7
타이		60	6.6
라오스		51	5.6
미얀마		49	5.4
캄보디아		43	4.7
인도		33	3.6
말레이시아		33	3.6
싱가포르		5	0.6
브루나이		1	0.1
소계		613	67.6
총계		907	100.0

## 3.2 직접 성과

### 가. 개도국 문화향유 확대

-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해 유발된 성과는 총 1,560으로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871건,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373건,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316건으로 개도국과의 교류협력 및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함
  - 대륙별로는 '아시아(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73.8%,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83.6%,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81.6%)'의 성과 비중 높음
  - 국가별로는 '몽골(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14.6%,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14.3%,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11.4%)'에서 발생한 성과가 가장 많음
  - 해외 국가와 교류하는 국내 기관 중 '국립극장(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18.1%,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15.4%,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14.5%)'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유발
  - 국내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프로그램) 중에서는 '전통음악 교류연수(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13.9%,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11.1%,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10.1%)'가 가장 많은 성과를 창출
-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후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은 공연/전시 참가(35.4%)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16.2%), 문화체험(13.1%)으로 나타났고, 자국에서의 활동이 43.1%로 가장 많음
- 특히, 자국에서의 활동은 공연/전시 참가(33.6%) 외에 제작/기획/디자인(21.6%) 비중이 높아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후 현지에서의 문화 창작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개도국 문화 전문가 육성 및 문화사업 기획 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함

[표 36] 귀국 후 대표문화 활동

구분	활동건수	주요 활동 내용 Top3
전체	871건(100.0%)	공연/전시 참가(35.4%),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16.2%), 문화체험(13.1%)
- 한국	263건(30.2%)	공연/전시 참가(31.9%), 문화체험(30.8%), 학업/어학(12.5%)
- 자국	375건(43.1%)	공연/전시 참가(33.6%), 제작/기획/디자인(21.6%),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14.1%)
- 제3국	233건(26.8%)	공연/전시 참가(42.1%), 오프라인 친목/정보 교류(24.5%), 문화체험(9.4%)

(Base = 총 871건)

## 나. 문화교류 협력 증진

-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sup>7)</sup>은 한국에서의 활동 251건, 자국 114건으로 한국과의 문화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오프라인 친목과 정보교류 등 문화 부문의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함

[표 37]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구분	활동건수	주요 활동 내용 Top3
전체	371건(100.0%)	오프라인 교류(30.3%), 공연/전시 참가(24.1%), 문화체험(22.0%)
- 한국	251건(67.7%)	문화체험(28.3%), 오프라인 교류(26.7%), 공연/전시 참가(25.5%)
- 자국	114건(30.7%)	오프라인 교류(37.7%), 공연/전시 참가(20.2%), 제작/기획/디자인(14.9%)
- 제3국	6건(1.6%)	오프라인 교류(50.0%), 문화체험(50.0%)

(Base = 총 373건의 귀국 후 한국교류 활동 중 지역별 정보 없음(2건) 제외)

- 또한, 문화동반자 사업참여자간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sup>8)</sup>을 보면 자국에서의 활동이 290건(92.7%)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온라인 교류(47.9%)와 오프라인 교류(46.2%) 모두 지속 유지되고 있어 문화동반자 사업이 국제교류 네트워크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표 38]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구분	활동건수	주요 활동 내용 Top3
전체	313건(100.0%)	오프라인 교류(44.9%), 온라인 교류(44.3%), 공연/전시 참가(5.4%)
- 한국	19건(6.1%)	공연/전시 참가(31.6%), 오프라인 교류·문화체험(26.3%)
- 자국	290건(92.7%)	온라인 교류(47.9%), 오프라인 교류(46.2%), 공연/전시 참가(3.1%)
- 제3국	4건(1.3%)	오프라인 교류(75.0%), 공연/전시 참가(25.0%)

(Base = 총 316건의 귀국 후 연수생간 교류 활동 중 지역별 정보 없음(3건) 제외)

7) 연수생이 자국과 한국(재입국), 그리고 제 3국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한 문화사업 및 문화 활동을 의미함

8) 연수 종료 이후 참가자 간 교류 및 협업 활동을 의미함

### 3.3 간접 성과

#### 가. 성평등 제고 및 여성 역량 강화

- 문화동반자 사업의 여성 참가자 비중은 42.3%로 국내 대표적인 저개발/개발도상국가 대상의 연수 사업들과 비교하여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통한 성평등 제고 및 여성의 역량 강화에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39] 해외 연수자 초청 프로그램별 여성 참가자 비중

기관	KOFICE	KOCCA	KOICA <sup>9)</sup>
출처	문화동반자 사업 통계	내부 초청연수생 실적통계	국가별 연수프로그램 통계
기준연도	2009~2013년	2009~2013년	2009-2013
여성 비중	<b>42.3%</b>	32.0%	30.4%

\*KOFICE의 문화동반자 사업(2005~2020) 전체 통계(전체 여성 참여 비중 42.3%)

#### 나. 문화분야 지속발전 이행

- 문화동반자 사업 참가자 중 75.8%는 참여당시 문화분야에 종사하였고, 현재도 문화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문화 부문으로 이탈은 12.0%에 불과해 문화분야의 지속 종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참가자의 11.4%는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지위 상승은 남성(11.7%)과 여성(11.1%)에게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40] 문화동반자 사업 참여 이후 문화 분야 종사 현황

구분	사례수	문화부문 유지		문화부문 유입	문화부문 이탈	사회적 지위 상승(%)
		동일 분야	타 분야	비문화->문화	문화->비문화	
전체	(1,052)	71.2	4.6	4.0	12.0	11.4
- 남성	(600)	70.0	4.8	4.3	11.8	11.7
- 여성	(452)	72.8	4.2	3.5	12.2	11.1

9) KOICA는 성평등 2011-2015 전략의 일환으로 성 주류화를 위한 조직 내외적인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왔고, 2010년부터 다국가 연수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여성연수생 30% 쿼터제를 실시



## 2 제언

- 문화동반자 사업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개도국과의 교류협력 및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본 과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자가 국제교류 네트워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2005년에서 2020년까지의 모든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참여자들의 주요 활동 자료만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존재함

### 성과도출을 위한 성과 지표 체계의 확립 필요

- 문화동반자 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확인을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도출 가능한 성과 항목을 구체화(정량/정성)하고 이를 지표로 개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자료수집은 사업 참여 이후 최소 5년간 추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자 정보관리(업데이트)가 필수적임
- 또한,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성과도출을 위한 개별 지표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성과도출을 위한 근거의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문화동반자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함께 분석되지 않아 세부 사업을 통한 수혜자 대상의 발생 효과(문화 인지도 향상, 연수 향상 효과 등)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음
- 때문에 지표 개발과정에서 문화동반자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해 현재 설정되어있는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사업 본연의 효과를 높이는 개선방안 도출 등 활용도 제고

- 문화동반자 사업은 한국의 문화 분야 압축적 발전 경험을 ODA 수원국에 전수함으로써 수원국의 공공 문화사업 활성화 및 역량제고, 기반 구축, 문화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행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연/전시 참가’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국 중심으로 ‘제작/기획/디자인’ 등은 아직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프로그램) 개선 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